

고전적(古典籍) 정리·번역서의 종이책과 전자책 이용에 대한 이용자 인식 연구*

A Study on Users' Perception towards the Utility of Publication Formats between Printed Books and Electronic Books of Korean Classics Collations and Translations

고 영 만 (Young Man Ko)** , 심 원 식 (Wonsik Shim)***
송 민 선 (Min-Sun Song)**** , 윤 현 정 (Hyun Joung Yoon)*****

목 차

- | | |
|--------------------------------|-----------------------|
| 1. 서론 | 4. 기초자료 및 설문 조사 종합 분석 |
| 2. 기초자료 분석 | 5. 결론 및 제언 |
| 3. 고전적 정리·번역 자료의 활용과 가치에 대한 인식 | |

초 록

본 연구는 고전적 정리·번역서의 향후 출판 방향 모색과 관련하여 출판 방식의 변화와 현황 및 고전적 정리·번역서의 출판 형태에 대한 전문가와 일반이용자의 인식 차이를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일반적인 종이책과 전자책의 이용에 관한 국내외 관련 연구를 분석하고 국내 주요 기관의 고전적 정리·번역서 출판 현황을 조사하였으며, 한국고전번역원의 메일링리스트를 활용하여 전문가와 일반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전자책은 종이책을 완벽하게 대체하는 매체로 간주되기는 어려우며, 이용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양분간 종이책과 전자책의 병행이 타당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종이책과 전자책의 개인적 사용가치, 소장가치, 가독성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일반이용자와 전문가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도서관이나 관련 기관에서의 보존가치에 대한 평가에서는 종이책에 대한 집단 간 유의한 차이는 확인되었으나 전자책의 경우에는 집단 간 의미있는 차이가 없었다. 또한 학술 연구나 번역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 종이책 형태의 고전적 정리·번역서가 전자책에 비해 더 선호되며, 온라인을 통한 이용에 있어서는 전자책보다 데이터베이스를 더 많이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전적 정리·번역서의 전자책 구현을 위해서는 고전적의 특수성과 상징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기술적으로 모든 환경에서 이용이 가능한 표준화된 플랫폼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ABSTRACT

This research aims at understanding the differences between expert and general users' perceptions regarding publication preferences for Korean classics collations and translations in order to formulate future directions for these materials. For this purpose, an overview of changes in publishing in general as well as current status of collation/translation of Korean classics in particular are being identified. An online questionnaire was carried out in order to collect data regarding perceptions and preferences of expert users and general users of Korean classics. The results are based on the analyses of more than 1,000 responses. The analyses show that electronic books will not completely replace printed books and publishing both electronic and printed books in tandem for the time being is most preferable in order to satisfy varying user needs. Statistical analysis shows differences in terms of use value, value from possession, and readability of electronic and printed books in the two groups of users. However, as for the value of preservation by relevant institutions, there was a statistical difference between two groups towards printed books unlike their electronic equivalents. The research shows strong preference towards printed forms of classics collations and translations for the purpose of scholarly research and translation. Actual usage statistics reveal much heavy use of online database of classics translations compared to the use of available electronic books. For future publishing decisions for classics collations and translations will need to take into consideration of their special characteristics and symbolic nature. Proper representation of these materials into electronic format would require a standardized platform that enable various uses in different environments.

키워드: 고전적, 정리서, 번역서, 종이책, 전자책

Korean Classics, Collations, Translations, Printed book (p-book), Electronic book (e-book)

* 이 논문은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고전번역원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2017년 기획연구과제의 결과물임(ITKC-2017-RE-01).

** 성균관대학교 문과대학 문헌정보학과 교수(ymko@skku.edu) (제1저자)

*** 성균관대학교 문과대학 문헌정보학과 교수(wonsikshim@skku.edu) (교신저자)

**** 성균관대학교 정보관리연구소 연구원(songser@skku.edu) (공동저자)

***** 성균관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박사과정(rkawkydy@naver.com) (공동저자)

논문접수일자: 2018년 1월 17일 최초심사일자: 2018년 1월 17일 게재확정일자: 2018년 2월 12일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2(1): 259-283, 2018. [http://dx.doi.org/10.4275/KSLIS.2018.52.1.259]

1. 서론

1.1 연구 필요성과 목적

그 동안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 분야는 다양한 정책적·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비교적 체계적인 국가 지원을 받아왔으나, 인문학 분야는 사회적 필요성과 관심에 비해 예산 지원 및 관련 정책 수립 측면에서 홀대되어 온 경향이 있다.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2016년 8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인문학 연구 지원을 확대하고 인문 교육과 대중화를 위한 일관되고 지속적인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국가적 인문 역량 강화를 꾀하고 있다(교육부 2017; 문화체육관광부 2017).

이와 같이 인문학을 부흥시키기 위한 범정부적인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인문학의 활성화에 대한 기대 또한 커졌다. 특히 한국문화경제학회(2011)의 연구에 따르면 연구자뿐 아니라 일반 국민과 문화 콘텐츠 창작활동 종사자들의 고전 번역물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관련해서 다양한 분야의 고전 자료를 번역하여 일반 국민들이 보다 쉽게 접할 수 있게 하는 노력 또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고전번역물은 데이터베이스로 구축되어 온라인 방식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아울러 번역된 내용을 단행본 형태의 종이책자로 출판하거나 또는 컴퓨터나 스마트 기기 등의 디지털 매체를 통해 볼 수 있는 전자책(e-book)으로 출판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디지털 멀티미디어 기술과 더불어 도서의 출판 형태와 독서 양식이 다양화됨에 따

라 실제 국내의 고전 관련 기관에서도 고전적 정리·번역서의 전자책을 출판하기 시작하였으며, 관련 출판 방식에 대해서도 보다 이용자 친화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논의가 시작되었다.

단행본 형태로 출판되는 일반 도서의 전자책과 종이책의 경우, 각각의 장점과 단점에 관한 다양한 시각과 의견이 존재한다. Foasberg(2014), Millar and Schrier(2015), (주)마크로밀엠브레인(2016) 등의 조사 결과를 종합해 보면 일반 도서의 전자책이 갖는 장점은 '시간과 장소의 제한 없이 이용 가능', '검색 용이', '다수의 자료를 저렴한 가격과 다양한 기기로 독서할 수 있음' 등이고, 종이책의 장점은 '소장가치와 높은 집중도', '읽는 중 메모나 기록 등의 표시 용이' 등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일반 도서의 종이책과 전자책 출판에 관한 이용과 선호도에 대해서는 여러 연구가 이루어졌으나(박수진 2007; Waters et al. 2014; Silverman 2014; Zabukovec and Vilar 2015; Millar and Schrier 2015), 고전적 정리·번역서와 같이 특정한 주제 분야나 이용자층의 특수성을 고려해 실시된 연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국내에서 출판된 고전적 정리·번역서의 전자책의 경우 일반 전자책에 비해 아직 기술적 측면과 이용자 친화적 측면에서 미흡한 점이 많이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향후 기술 발전을 고려할 경우 이용자의 편의성 측면에서 전자책 출판에 대한 수요는 일반적인 전자책의 수요에 상응하여 변화할 것이라는 점을 예측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고전적 정리·번역서가 가지는 특수성을 고려할 경우 종이책 출판에 대한 수요 역시 일정 수준을 유지할 것

이라는 가정 또한 가능하다. 또한 디지털 시대의 종이책과 전자책의 상호 보완 역할에 관해 연구한 정명순(2014)은 앞으로 전자책이 종이책을 완전히 대체할 것으로 예측되기보다는 상호보완적인 매체로 공존하며 활용될 것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고전적 정리·번역서에 대해서도 이용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가설적 논의를 바탕으로 자료의 특수성과 상징성을 고려한 체계적인 조사를 통해 향후의 출판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필요성에 입각하여 출판 방식의 변화에 대한 선행 연구와 현황 분석 및 고전적 정리·번역서의 출판 방식과 이용에 관해 전문가와 일반이용자가 가지고 있는 인식에 대한 실증 조사를 통해 향후의 출판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용어 ‘고전적 정리·번역서(古典籍整理·翻譯書)’는 ‘오래된 문헌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재정리하거나, 현대적인 언어로 번역해 발간한 서적, 혹은 자료’를 의미한다.

1.2 연구 내용과 방법

본 연구는 기초자료 분석과 설문 조사를 통해 수행되었다. 기초자료 분석을 통해 종이책과 전자책의 기능과 장단점, 종이책과 전자책의 이용 목적과 선호도, 종이책과 전자책의 판매 현황과 이용 실태에 관한 선행 연구를 검토하고 국내 주요 고전번역기관의 종이책과 전자책 출판 현황을 살펴보았다.

설문조사를 통해서서는 전문가와 일반이용자 간에 종이책과 전자책 출판 형식에 따른 이용

과 가치의 인식 차이를 알아보았다. 고전적 정리·번역서는 자료의 특성 상 일반이용자와 전문가가 생각하는 자료의 가치나 활용 방식 등이 다를 수 있으며, 향후 출판 방향의 고려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설문지는 고전적 정리·번역서의 출판 형식에 따른 접근성, 가독성, 이용 및 소장 가치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조사를 하여 두 집단 간 그리고 기초자료 분석 결과와 설문조사 분석 결과를 토대로 향후 고전적 정리·번역서의 효율적인 출판 방향을 제시하였다.

원활한 표집을 위해 국내 고전번역의 중심기관인 한국고전번역원의 방대한 메일링 리스트와 전문가 리스트를 활용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이용자 집단 중 일반이용자는 한국고전번역원에서 제공하는 고전산책 메일링서비스를 받아보는 회원 전체(약 37,000명)를 말하며, 전문가에는 고전 관련 학과 교수와 대학원생 및 고전번역 관련 종사자와 학생(약 850명)이 해당된다. 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는 또한 한국고전번역원에서 제공되는 고전적 정리·번역 자료와 서비스로 그 범위를 한정하여 설문 항목을 구성하였다(〈표 1〉 참조).

설문 조사는 2017년 11월 3일부터 13일까지 총 11일간 Google 온라인 설문도구를 이용해 진행하였으며, 한국고전번역원의 ‘고전산책’ 메일링 서비스 목록, 그리고 한국고전번역원의 전문가 목록을 이용하여 구글 설문 링크가 포함되어 있는 설문참여 안내 e-mail과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식으로 실행하였다. 설문 결과 일반이용자 709명, 전문가 496명이 설문에 응답하였으며, 이 중 불성실 응답 설문을 제외한 후, 일반이용자 606명, 전문가 461명의 응답을 대상으로

〈표 1〉 설문 항목 구성 내용

설문 대상자	설문 항목	설문 내용
일반이용자	고전적 정리·번역 자료에 대한 관심 및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소 우리나라 고전번역에 대해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는가 • 고전번역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 고전번역 활용과 관련된 일을 할 경우 어떤 종류의 일에 종사하는가
	고전적 정리·번역 자료의 활용 정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전적 정리·번역 자료를 얼마나 자주 이용하는가 • 평소 어떤 형태의 고전적 정리·번역 자료를 이용하는가 • 고전적 정리·번역물 이용에 있어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 • 평소 고전적 정리·번역물을 어떤 경로를 통해 인지하는가
전문가 항목	고전적 정리 번역자료의 실제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고전이나 기록유산 등의 정리·번역물을 얼마나 자주 이용하는가 • 평소 어떤 형태의 고전적 정리·번역 자료를 이용하는가 • 고전적 정리·번역물 이용에 있어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 • 고전번역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 고전번역 활용과 관련된 일을 할 경우 어떤 종류의 일에 종사하는가
	한국고전번역원의 고전적 정리·번역 자료의 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고전번역원에서 정리·번역하여 발간한 종이책을 얼마나 자주 이용하는가 • 한국고전번역원에서 정리·번역하여 발간한 종이책을 개인적으로 얼마나 소장하고 있는가
일반이용자, 전문가 공통	한국고전번역원 자료의 접근과 이용 정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고전번역원에서 번역한 자료 서비스를 주로 어떤 방식으로 이용하는가 • 한국고전번역원이 제공하는 한국고전종합DB를 얼마나 자주 이용하는가 • 한국고전종합 DB 가운데 전자책 라이브러리 메뉴를 얼마나 자주 이용하는가 • 전자책 라이브러리에서 이용한 콘텐츠는 어떤 종류인가 • 한국고전종합DB를 이용할 때 어떤 기기를 사용하는가
	한국고전번역원 고전적 정리·번역 자료의 이용 가치에 대한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고전번역원에서 발간한 '종이책'과 '전자책'의 '개인적 사용가치'는 어떠한가 • 한국고전번역원에서 발간한 '종이책'과 '전자책'의 '개인적 소장가치'는 어떠한가 • 한국고전번역원에서 발간한 '종이책'과 '전자책'의 '도서관이나 관련 기관의 보존 및 소장 가치'는 어떠한가 • 한국고전번역원에서 발간한 '종이책'과 '전자책'의 '가독성'은 어떠한가

분석이 이루어졌다. 인터넷 상으로 설문이 진행되어 두 집단 간의 중복 응답 가능성이 있으므로, 설문 사례 지급을 목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 항목을 토대로 중복 응답한 사례들을 분석 전에 배제하였다.

화된 이후, 다양한 분야에서 종이책 매체와의 사용성 비교를 통한 기능적인 장단점, 이용자들의 매체 선호도 등을 비교·분석하는 연구를 비롯해, 전자책과 종이책을 이용하는 주요 목적 및 이용 실태 등에 대한 연구 조사가 진행되어 왔다.

2. 기초자료 분석

2.1 종이책과 전자책의 효용성 비교 연구

전자책 콘텐츠 출판 시장이 본격적으로 활성화

2.1.1 전자책과 종이책의 기능 및 장단점 비교 연구

전자책과 종이책의 기능과 장단점 비교와 관련해서는 전자책과 종이책의 가독성 차이 및 기능성 평가 연구, 이용자가 느끼는 감성적인

부분들을 비교하기 위한 인터페이스 평가 연구들이 주로 이루어졌다.

전자책과 종이책의 가독성과 관련해, 이민호(2012)는 아이트래커(시선추적장치)를 이용해 전자책이 종이책에 비해 평균 시선 고정 시간과 도약 시간이 길어 가독성이 떨어지고 눈깜빡임 비율은 높아 피로도는 증가시킨다는 결과를 도출하였고, 이나라와 이우훈(2012)은 읽기 매체와 자세의 조합에 따라 이북리더는 사용자의 물리적, 감정적인 차이를 야기하고 실제로 종이책에 비해 가독성도 떨어진다고 하였다. 또한 여러 가지 독서 장치의 종류에 따라 이용자의 감성적 차이와 가독성, 독서 상태의 편함 정도를 비교 실험한 박영경, 이혜미, 이설희(2015)는 이용자들이 LCD보다는 E-ink 전자책을 감성적으로 종이와 가깝게 느끼며, 독서 상태의 편안함 정도는 종이책, E-ink 전자책, LCD display 순서인 것으로 분석하였다.

한편, 전자책의 인터페이스 디자인과 관련해 손용범과 김영학(2012)은 노트북처럼 큰 화면의 단말기보다 넷북과 같은 중간 크기 화면 단말기가 사용자 이해력을 더 높이는 결과가 나타났다고 분석하였고, 이동용과 이태일(2014)은 종이 책장을 넘기는 것 같은 메타포 그래픽을 적용한 전자책의 페이지 전환 방식이 종이책과 유사한 친숙성과 자연스러움을 부여하는 효과가 있다고 하였다. 또한, 본문 텍스트가 책이 되는 데에 필요한 주변적 요소라는 의미의 '파라텍스트(para-texte)' 개념을 인간이 느끼는 오감과 접목한 관련 사례들을 분석한 엄인영(2016)은, 인간의 오감 중 두 개 이상의 감각들에 의한 자극으로 얻는 경험과 감성이 전자책에 비해 종이책이 훨씬 강하기 때문에, 전자

책은 인간의 편리함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종이책은 책을 통해 느끼는 경험과 감성의 본질을 지켜갈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조정미와 공병훈(2017)은 전자책 사용자들이 ePUB에서 제공하는 기능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며 종이책 편집 요소를 반영한 기능조차 위축되는 것으로 분석하고, 전자책 인터페이스를 디자인함에 있어 다양한 기능의 활용을 높이기 위한 후속 연구들이 필요함을 언급하였다.

2.1.2 전자책과 종이책의 판매 현황과 이용 실태 분석 연구

전자책의 출판과 판매가 본격적으로 실시된 이후부터, 국내외 조사기관에서 종이책과 전자책의 판매 현황에 대한 통계를 집계·분석해왔고, 이용자 집단의 특성에 따른 종이책과 전자책 이용 방식의 차이에 대해서도 꾸준히 조사되어 왔다.

미국인들의 독서 행위에 대해 조사·발표한 Pew 연구센터(Pew Research Center 2016)에 따르면, 전자책은 과거 일정 기간 동안 이용 비율이 약 10% 가량 증가해 왔으나 최근 들어 증가 추세가 약화된 데 비해, 종이책 이용은 지속적으로 과반 이상의 비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Zhang and Kudva(2013)가 미국인들의 전자책과 종이책 이용 실태를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실질적인 독서 빈도가 가장 높은 그룹은 전자책과 종이책 모두를 이용하는 집단인 것으로 분석되었고, 전자책을 이용하는데 중요한 예측 인자는 읽은 책의 수, 개인 소득,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한 독서 빈도, 개인의 인터넷 사용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도서관협회(American Library Association, ALA)와 출판산업연구그룹(Book Industry Study Group, BISG)이 공동 연구한 내용에 의하면(ALAnews 2015), 도서관 이용자들의 경우 응답자의 23%가 1년 동안 최대 10권의 전자책을 대출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공공도서관을 이용하는 가장 주된 목적은 인쇄자료를 빌리는 것이라고 답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해외의 경우 전자책의 판매 비율의 증가세가 둔화되거나 감소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미국출판협회(Association of American Publishers, AAP)의 보도에 따르면 2016년 1월 eBook 판매가 전년도 1월에 비해 24.9% 감소하고, 이에 비해 종이책은 4.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AAP Newsroom 2016). Forbes 역시 영국의 출판사들이 2015년 이후 7% 매출 증가가 있었던 데 비해, 전자책 판매는 오히려 3% 감소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Forbes 2017).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실태 조사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또한 2013년과 비교했을 때 2015년의 전자책 제작 종수는 다소 감소하거나 정체되었고, 같은 기간 판매액도 다소 감소하거나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2016).

한편, 국내에서는 신선(2013)이 2012년 한국 미디어 패널조사 데이터를 가지고 종이책과 전자책의 독서 현황을 분석했는데, 종이책 독자가 1,167명으로 전자책(94명)에 비해 10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최근에 이루어진 종이책과 전자책 이용 경험 및 인식에 대한 국내 조사 내용을 살펴보면(㈜마이크로밀 엠브레인 2016), 전자책의 경우 2014년 대비 구입 권수가 좀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고, 구

매 시 전자책은 '소설'과 '만화'를, 종이책은 '자기계발'과 '인문' 분야를 상대적으로 많이 구매하는 특징을 보였다. 또, 연령대가 낮고 월평균 독서량이 많은 응답자일수록 구입 전자책에 대해 만족하는 경우가 좀 더 많았고, 30대이면서 월평균 독서량이 많은 응답자일수록 향후 전자책 재구매 의향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이에 비해 구입한 종이책에 대한 만족도는 전자책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여성이면서 40대 연령층에 해당하는 경우 향후 재구매 의향이 상대적으로 높은 특징을 보였다.

2.1.3 전자책과 종이책의 이용 목적 및 선호도 비교 연구

실제 이용자들이 종이책과 전자책을 사용하는 데 있어 어떤 목적에서 해당 매체를 선택해 이용하는지, 그리고 둘 중 어떤 매체를 보다 선호하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등을 분석한 비교 연구도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박수진(2007)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정보 유형이나 형태, 특성에 따라 선호 매체 차이가 있는지 설문을 실시했는데, 사고형 정보의 경우는 종이책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고, 정보 형태가 텍스트형일 경우는 종이책을, 비주얼형이나 공간형 정보일 경우는 전자책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 교수진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한 Waters et al.(2014)의 연구에서는 전체 응답자의 61%가 종이책을 선호하였고, 전자책은 찾는 것이 어렵고 이용하기도 힘들며, 화면으로 읽기 어렵다는 점을 단점으로 꼽았다. Silverman(2014)의 설문조사에서는 조사 대상의 72%가 도서관 장서로써 종이책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으며, 절반 이상 응답

자는 선택을 해야 한다면 전자책보다는 종이책을 사용할 것이라고 하였고, 실제 연구 등을 위한 전자책 사용과 관련해서는 교수진과 교직원들은 33% 가량이, 학생들은 45%가 이용한다고 답변하였다. Zabukovec and Vilar(2015)의 설문에서는, 학문적 독서를 위해서는 종이책 이용을 선호하며, 보조적으로 전자 자료의 인쇄물 형태(printing out the electronic material)를 병행해 이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두 매체의 사용성을 평가하거나, 종이책과 전자책 사용에 대한 메타 연구도 수행된 바 있다. 정미리와 김보연(2013)은, 종이책을 이용할 때 책의 본문에 더 집중할 수 있고, 전자책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기능을 찾기 위해 고민하는 과정 동안 책의 본문에 집중하는 능력이 떨어진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배경재(2015)의 연구에서는 아직까지는 인쇄매체에 대한 사용자 경험이 전자매체에 비해 긍정적임을 확인할 수 있고, 특히 해당 정보를 활용해 스스로 정보를 생산하는 단계에서는 오히려 인쇄매체가 전자매체를 이용하는 것보다 시간이 절약된다는 의견 등을 찾아볼 수 있었다. 관련 문헌 분석을 통해 메타 연구를 수행한 Myrberg and Wiberg(2015)는 아직까지는 일반적으로 지식을 습득하는 데 있어 종이책이 더 선호되고는 있지만 전자책의 경우 상호작용을 위한 다양한 멀티미디어 효과에 대해 긍

정적인 반응이 많은 것으로 분석하였다.

2.2 국내 주요 기관의 고전적 정리·번역서 출판과 전자책 구현 현황

2.2.1 국내 주요 기관의 고전적 정리·번역서 출판 현황

고전적 정리·번역서에 관한 전자책과 종이책의 출판 규모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국내 주요 고전번역기관의 고전적 정리·번역 간행 도서를 해당 간행처의 간행목록을 토대로 집계하였다. 고전번역기관 목록은 『2016 고전번역연감』을 참조하였으며, 한국고전번역원의 ‘거점연구소 협동번역사업 간행물’에 포함된 서종과 중복되거나 고전텍스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도서만 간행된 것으로 나타난 고전번역기관은 본 집계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교감표집서는 집계하되 교감 과정을 거치지 않거나 표집이 없는 영인본과 해제·목록집은 집계에서 제외하였다. 전자책 수의 경우, 2017년 12월 말 기준, 각 기관의 전자책 라이브러리와 별도의 전자책 라이브러리가 미설치되어 있는 기관의 전자책은 리디북스, 교보문고 e-book 등 전자책 서비스 플랫폼을 조사하여 작성하였다. 총 집계 결과 종이책 3,251책, 전자책 537책으로 나타났으며, 간행기관과 서종별 출판현황은 <표 2>와 같다.

<표 2> 주요 고전번역기관의 전자책과 종이책 출판 현황

간행처	서종	종이책수	전자책수
한국고전번역원	교감표집서	853책	180책
	고전번역서	976책	
	고전대중화도서 및 기타도서	47책	
	거점연구소 협동번역사업 간행 번역서	189책	
	거점연구소 협동번역사업 간행 교감표집서	81책	
소계		2,145책	

간행처	서종	종이책수	전자책수
국사편찬위원회	국역 비변사등록	30책	226책
	한국사료총서	121책	
	각사등록	101책	
	기타 고대사·근대사	31책	
	소계	283책	
전통문화연구회	동양고전국역총서	20책	107책
	동양고전역주총서	93책	
	동양고전신역	2책	
	문화문고	9책	
	소계	124책	
세종대왕기념사업회	한국고전국역	247책	0책
	과학기술고전국역	28책	
	국학영인도서	2책	
	소계	277책	
한국국학진흥원	영남선현문집	24책	0책
	조선시대 민간 편찬 일기류	18책	
	한국국학진흥원 국역총서	13책	
	소계	55책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고전번역·정리서	81책	15책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실학번역총서	11책	0책
	순암번역총서	2책	
	유교경전번역총서	5책	
	고전대중화도서	16책	
	소계	34책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영남지역 생활사 자료집성 탈초표집서	1책	0책
경상대학교 남명학연구소	남명학연구번역서	19책	0책
고려대학교 한자한문연구소		1책	0책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한국고전국역총서	4책	0책
국립고궁박물관		6책	0책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	고전번역서	5책	0책
동국대학교 불교학술원	불교경전 및 경전연구서	109책	0책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2책	0책
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19책	0책
상주박물관		6책	0책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12책	0책
수원박물관		1책	1책
실시학사		27책	0책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11책	0책
원주시		0책	6책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	호남관련인물 전기자료 선집	2책	0책
제주교육박물관		4책	2책
조선대학교 고전연구원		2책	0책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9책	0책
청량산박물관		9책	0책
추사박물관		3책	0책
	소계	252책	9책
	총계	3,251책	537책

2.2.2 국내 고전번역기관의 전자책 구현 현황

조사된 고전번역기관 28곳 중 전자책 출판이 수행된 곳은 7곳에 불과하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전통문화연구회 두 기관에서 전자책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외부에 전자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다른 기관의 경우 해당 기관의 자체 웹사이트를 통해서 전자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이용자는 전자책으로 출판된 537책 중 122책(22.7%)을 외부에서 전자책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이용할 수 있으며, 나머지는 해당 기관의 자체 웹사이트인 전자책 라이브러리 검색 혹은 PDF 파일 다운로드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다.

각 기관별로 살펴보면, 한국고전번역원의 전자책 출판 수는 180책으로 전자책 서비스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고 한국고전번역원 자체 전자책 라이브러리를 통해 전자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전자책 라이브러리는 한국고전번역원 웹사이트와 한국고전종합 DB 사이트 첫 페이지에서 바로 접속 가능하며, 간행도서 목록에서도 전자책으로 출판된 도서의 경우 '전자책보기' 표시를 하여 이를 누르면 바로 접속 가능하게 하고 있어, 접근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라이브러리 홈 화면은 상단에 도서가 놓여 있는 이미지가, 하단에는 콘텐츠 분류와 목록이 위치하고 있어 전자책에 익숙하지 않은 이용자로 하여금 직관적인 사용이 가능하도록 돕고 있다.

국사편찬위원회의 경우 종이책 출판 수는 한국고전번역원보다 적지만 전자책 출판 수는 더 많다. 기출판된 대부분의 종이책이 전자책 형태로도 제공되고 있는데, 전자책이라기보다는 종이책 원문 제공에 가깝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전자책 서비스의 완성도는 다소 낮다. 국사

편찬위원회는 한국사데이터베이스,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 조선왕조실록 데이터베이스 등 다양한 한국사 관련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검색과 활용을 용이하게 하고, 한국사 관련 데이터를 LOD(Linked Open Data) 기반의 한국사 연계·통합 DB로 융합하여 제공함으로써 한국사와 관련된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와 어플리케이션 개발 활성화를 돕는 등의 여러 사업을 통해 한국사의 대중화에 힘쓰고 있다. 기관의 주요 방향이 사료 이용의 개방성과 편리성 제고, 맞춤형 사료 역사 정보 서비스 구현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사료의 특성을 고려해보았을 때, 자료의 총체적인 열람 기능보다 특정 부분 검색 기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정보화 사업이 강화되어 있는 듯하다. 국사편찬위원회 전자도서관을 통해 이용 가능하지만, 동일한 내용이 데이터베이스로도 모두 구축되어 있기에 이용자의 실제 사용은 어느 쪽이 더 활발한지 명확히 알 수 없다. 국사편찬위원회의 전자책은 국사편찬위원회 웹사이트 첫 페이지에서 전자도서관 접속 후, 간행도서 원문을 클릭하여 '원문' 표시가 있는 간행도서를 찾아 접근 가능하지만, 전자책(원문) 열람 불가능 도서와 함께 구분 없이 나열되어 있어 전자책의 접근성은 다소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전자책 인터페이스는 메뉴 바의 페이지 이동 버튼을 통해서만 페이지 전환이 가능하며 좌측에 목차 탭이 있으나 오류로 실행되지 않는 등 사용이 편리하지 않다. 상단 메뉴 바에는 페이지 이동, 화면 확대 및 축소, 단면/양면으로 보기, 인쇄, 이용안내 아이콘이 모여 있고 검색 기능은 구현되지 않는다.

전통문화연구회의 전자책 출판수도 많은 편

인데, 이 기관은 동양고전 부흥 및 고전현대화 사업을 목표로 하여 동양고전 국역, 동양고전 교육, 동양고전 정보화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같은 맥락에서 전통문화연구회는 동양고전 종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85과목 170강좌가 인터넷 강의 형식으로 개설되어 있는 사이버당 사이버서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다만 종이책에 대한 접근은 전통문화연구회 온라인 서점, 국내 오프라인 서점, 국내 온라인 서점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가능한 것에 반해, 전자책 열람은 기관의 홈페이지에 전자책 메뉴가 따로 개설되어 있지 않고, 전자책 서비스에 대한 안내 및 링크도 찾아볼 수 없다. 107책의 전자책은 리디북스, 교보 e-Book 등 국내 전자책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검색·이용이 가능하나 전통문화연구회의 간행물을 열람하고자 하는 이용자들의 전자책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및 인식은 다소 저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학중앙연구원은 다양한 분야의 연구도서와 논저를 출판하고 있는데, 대다수의 출판물을 전자책으로도 제공하고 있다. 이상 표의 전자책 출판 수는 15책으로 집계되었으나, 이는 고전적 정리·번역서만을 헤아린 수치이다.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는 한국학 지식전파 성과

강화를 전략 목표로 하여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과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편찬 및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한국학 기초 자료 데이터베이스 및 지식 콘텐츠 확산을 전략 과제로 삼고 있다. 전자책은 교보 eBook, 메키아, 리디북스, 아카디피아 등의 전자책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열람 가능하며, 해당 부분에 대한 안내를 명시하고 전자책으로 출판된 도서의 목록을 제공하고 있으며, 향후 더 많은 간행도서를 전자책으로 제공할 예정임을 알리고 있다. 서비스되고 있는 전자책 인터페이스는 전자책 전문 서점의 플랫폼을 이용하고 있으므로 화면 확대 및 축소, 검색, 공유, 책갈피 등 다양한 기능을 PC와 모바일, 태블릿 등에서 이용할 수 있다.

수원박물관, 원주시, 제주교육박물관의 경우 해당 기관의 간행도서 안내 페이지에서 전자책 열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PDF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전자책 인터페이스의 완성도는 다소 낮은 편이다. 이외의 고전번역기관 21곳에서는 다소 간의 고전적 정리·번역서가 종이책으로 출판된 것에 비해 전자책 출판은 전무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전자책 출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주요 기관별 구현 현황을 간략히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표 3> 기관별 고전적 정리·번역서의 전자책 구현 현황

기관명	전자책 수	접근 용이성	인터페이스	열람 가능 기기	기능			
					화면 확대 및 축소	검색	공유	책갈피
한국고전번역원	180	편리	자체 제작	PC, 모바일, 태블릿	○	△	○	X
국사편찬위원회	226	다소 불편	자체 제작	PC, 모바일, 태블릿	○	X	X	X
전통문화연구회	107	불편	외부 서비스	PC, 모바일, 태블릿	○	○	○	○
한국학중앙연구원	15	다소 불편	외부 서비스	PC, 모바일, 태블릿	○	○	○	○
수원박물관	1	편리	자체 제작	PC, 모바일, 태블릿	○	○	X	○
원주시	6	편리	자체 제작	PC, 모바일, 태블릿	○	○	X	○

※ 접근용이성 항목은 전자책 뷰어까지 도달하는 클릭 수를 기준으로 구분

3. 고전적 정리·번역 자료의 활용과 가치에 대한 인식

본 장에서는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전문가와 일반이용자의 고전적 정리·번역 자료의 활용과 가치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3.1 설문조사 결과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설문 결과 일반이용자 709명, 전문가 496명이 설문에 응답하였으며, 이 중 불성실 응답지를 제외한 일반이용자 606명, 전문가 461명의 설문 결과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일반이용자와 전문가 집단 모두 성별 구성은 남성이 높았으며, 전문가 집단의 경우 여성 비율이 조금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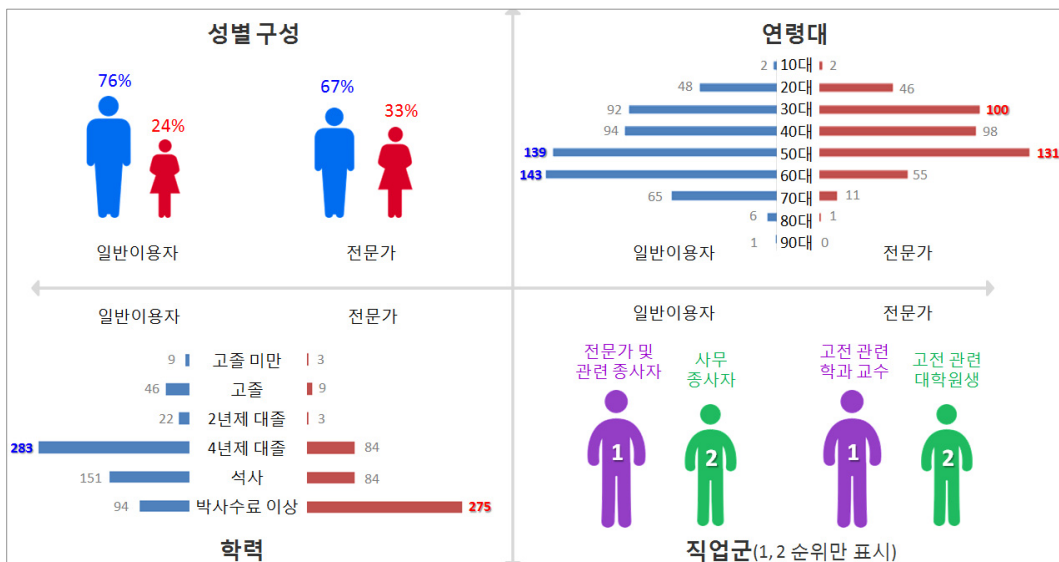
연령대의 경우, 일반이용자는 60대 응답자가 가장 많고, 50대, 40대, 30대 순서로 집계되었으

나 전문가는 50대 응답자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이 30대, 40대, 60대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문가 집단의 직업 특성상 고전번역 관련 학과 교수와 대학원생 분포가 많아 연령대 구성이 일반이용자와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직업군은 일반이용자는 법조인, 회계사, 교수 등의 전문가 관련 종사자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회사원이나 일반 공무원 등의 사무종사자가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문가 집단은 고전관련 학과 교수와 대학원생이 비슷하게 높은 비율로 응답을 하였고, 그 외 기타라는 응답이 많았는데 이들은 대체로 관련 직종 종사자, 개인 연구자, 교사, 강사 등으로 나타났다(〈그림 1〉 참조).

3.2 일반이용자의 고전적 정리·번역 자료 활용 및 관심 정도

한국고전이나 기록유산 등의 정리·번역물



〈그림 1〉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자료를 얼마나 이용하는지에 대해 일반이용자들에게 질문한 결과, 응답자의 39%가 「(한 달에 2~3회 정도) 가끔 이용하는 편이다」라고 응답하였고, 그 다음이 「(일주일에 1회 이상) 비교적 자주 이용하는 편이다」가 23%로 응답해 과반 이상의 일반이용자들이 한국고전이나 기록유산 등의 정리·번역물 자료를 한 달에 2~3회 이상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평소에 독자로서 우리나라 고전번역에 대하여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는지를 질문한 결과, 일반이용자의 60%가 「관심이 많은 편이다」로, 27%가 「매우 관심이 많다」라고 응답해

응답자 대부분(87%)이 우리나라 고전번역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표 4〉 참조).

평소 어떤 형태의 고전적 정리·번역물을 이용하는지에 대해 복수 선택하도록 한 질문에서는, 「정리·번역이 완료된 내용의 데이터베이스 형태의 웹서비스」를 43%로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대중용 독서를 위해 가공된 책자 형태(예: 한권으로 읽는 조선왕조실록)」, 「정리·번역 완료된 내용의 책자」를 각각 26%, 21% 순으로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5〉 참조).

〈표 4〉 일반이용자의 고전적 정리·번역 자료 이용 및 관심 정도

설문 내용	응답 내용	빈도(비율)
한국고전이나 기록유산 등의 정리·번역물 이용 정도	1) 전혀 이용하지 않는다	39(7%)
	2) 거의 이용하지 않는 편이다(한 달에 1회 이하)	114(19%)
	3) 가끔 이용하는 편이다(한 달에 2~3회)	237(39%)
	4) 비교적 자주 이용하는 편이다(일주일에 1회 이상)	139(23%)
	5) 매우 자주 이용한다(일주일에 3회 이상)	75(12%)
평소 우리나라 고전번역에 대한 관심 정도	1) 전혀 관심이 없다	0(0%)
	2) 관심이 적은 편이다	22(4%)
	3) 그저 그렇다	57(9%)
	4) 관심이 많은 편이다	364(60%)
	5) 매우 관심이 많다	163(27%)

〈표 5〉 일반이용자의 고전적 정리·번역 자료 이용 형태

설문 내용	응답 내용	빈도(비율)
평소 이용하는 고전적 정리·번역물의 이용 형태(복수 응답)	1) 정리·번역 완료된 내용의 책자	179(21%)
	2) 정리·번역 완료된 내용의 데이터베이스 형태의 웹서비스	371(43%)
	3) 대중용 독서를 위해 가공된 책자 형태 (예: 한권으로 읽는 조선왕조실록)	224(26%)
	4) 교육용으로 재가공된 형태의 책자나 영상물 (예: 어린이 목민심서, 마법천자문 등)	43(5%)
	5) 문화적 소비를 목적으로 재가공한 형태(드라마, 뮤지컬 등)	50(6%)
	6) 기타	3(0%)

3.3 전문가의 고전적 정리·번역 자료 활용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한국고전이나 기록유산 등의 정리·번역물을 얼마나 자주 이용하는지 여부에 대해 질문한 결과, 응답자의 과반 이상인 59%가 「(일주일에 3회 이상) 매우 자주 이용한다」라고 답변하였다. 다음 순위로 26%가 「(일주일에 1회 이상) 비교적 자주 이용하는 편이다」, 13%가 「(한 달에 2~3회)로 가끔 이용하는 편이다」로 응답해 전문가 집단 응답자의 약 98%가 정리·번역물을 일주일에 1회 이상 자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6〉 참조). 또한 평소 어떤 형태의 고전적 정리·번역

물을 이용하는지에 대해 복수선택 하도록 한 결과, 「정리·번역 완료된 내용의 데이터베이스 형태의 웹서비스」가 62%로 가장 많이 이용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리·번역 완료된 내용의 책자」가 31%로 그 다음 순위로 많이 이용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표 7〉 참조).

한국고전번역원에서 정리·번역하여 발간한 종이책을 얼마나 자주 이용하는지에 대해 질의한 결과, 응답자의 38%가 「(한 달에 1회 이하) 거의 이용하지 않는 편이다」로, 32%가 「(한 달에 2~3회) 가끔 이용하는 편이다」로 응답하였다(〈표 8〉 참조). 한국고전번역원에서 정리·번역하여 발간한 종이책을 개인적으로 얼마나

〈표 6〉 전문가들의 일반 고전적 정리·번역 이용 정도

설문 내용	응답 내용	빈도(비율)
한국고전이나 기록유산 등의 정리·번역물 이용 정도	1) 전혀 이용하지 않는다	1(0%)
	2) 거의 이용하지 않는 편이다(한 달에 1회 이하)	10(2%)
	3) 가끔 이용하는 편이다(한 달에 2~3회)	59(13%)
	4) 비교적 자주 이용하는 편이다(일주일에 1회 이상)	121(26%)
	5) 매우 자주 이용한다(일주일에 3회 이상)	270(59%)

〈표 7〉 전문가들이 평소 이용하는 일반 고전적 정리·번역 자료 형태

설문 내용	응답 내용	빈도(비율)
평소 이용하는 고전적 정리·번역물의 이용 형태(복수 응답)	1) 정리·번역 완료된 내용의 책자	201(31%)
	2) 정리·번역 완료된 내용의 데이터베이스 형태의 웹서비스	411(62%)
	3) 다양한 형태로 재가공한 형태(드라마, 뮤지컬, 고전명구 등)	36(6%)
	4) 기타	12(2%)

〈표 8〉 전문가들의 한국고전번역원 정리·번역서의 종이책 이용 정도

설문 내용	응답 내용	빈도(비율)
한국고전번역원에서 정리·번역해 발간한 종이책의 이용 정도	1) 전혀 이용하지 않는다	59(13%)
	2) 거의 이용하지 않는 편이다(한 달에 1회 이하)	173(38%)
	3) 가끔 이용하는 편이다(한 달에 2~3회)	149(32%)
	4) 비교적 자주 이용하는 편이다(일주일에 1회 이상)	51(11%)
	5) 매우 자주 이용한다(일주일에 3회 이상)	28(6%)

〈표 9〉 전문가들의 한국고전번역원 정리·번역서의 종이책 이용 및 소장 정도

설문 내용	응답 내용	빈도(비율)	
		일반이용자	전문가
한국고전번역원에서 정리·번역해 발간한 종이책 소장 정도	1) 전혀 소장하고 있지 않다	75(16%)	
	2) 몇 권의 책만 소장하고 있다.	196(43%)	
	3) 수십 권 정도를 소장하고 있다	121(26%)	
	4) 백 권 이상 소장하고 있다.	68(15%)	

소장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응답자의 43%가 「몇 권의 책만 소장하고 있다」, 26%가 「수십권 정도를 소장하고 있다」라고 답했으며, 백 권 이상 소장하고 있는 응답자도 15%에 달했다(〈표 9〉 참조).

3.4 일반이용자와 전문가의 한국고전번역원 자료 접근과 이용

한국고전번역원에서 번역한 자료를 주로 어떤 방식의 서비스로 이용하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일반이용자의 73%와 전문가의 94%가 한국고전번역원 인터넷 홈페이지 방문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용자 대부분이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고전번역원의 번역 자료를 이용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표 10〉 참조).

한국고전번역원이 제공하는 한국고전종합DB의 검색 및 사용 정도와 관련한 질문에서, 일반이용자의 36%가 「(한 달에 2~3회) 가끔 이용하는

편이다」, 17%가 「(일주일에 1회 이상) 비교적 자주 이용하는 편이다」로 응답해 응답자의 과반 이상인 약 53%가 한 달에 2~3회 이상 한국고전종합DB를 검색하고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전문가 집단의 경우는, 59%가 「(일주일에 3회 이상) 매우 자주 이용한다」, 21%가 「(일주일에 1회 이상) 비교적 자주 이용하는 편이다」라고 응답해 80%에 해당하는 응답자가 한국고전종합 DB 서비스를 일주일에 1회 이상 자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1〉 참조).

한국고전종합DB 가운데 전자책을 모아 서비스하고 있는 전자책 라이브러리 메뉴의 사용에 대한 질문에서는, 일반이용자와 전문가 모두 「(한 달에 2~3회) 정도로 가끔 이용하는 편이다」라는 응답이 각각 37%와 28%로 가장 많이 나왔다. 그 다음 순위는 「전혀 이용하지 않는다」로 일반이용자와 전문가 모두 25% 응답률을 나타냈으며, 3순위 응답은 「(한 달에 1회 이하) 거의 이용하지 않는다」가 각각 23%, 22%로 나타났다(〈표 12〉 참조).

〈표 10〉 한국고전번역원 번역 자료 이용 방식

설문 내용	응답 내용	빈도(비율)	
		일반이용자	전문가
한국고전번역원에서 번역한 자료의 이용 방식	1) 한국고전번역원 인터넷 홈페이지 방문을 통해	440(73%)	432(94%)
	2) 출판된 책을 통해	129(22%)	21(5%)
	3) 기타	32(5%)	5(1%)

〈표 11〉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의 검색 및 사용 정도

설문 내용	응답 내용	빈도(비율)	
		일반이용자	전문가
한국고전종합DB의 검색 및 사용 정도	1) 전혀 이용하지 않는다	82(14%)	2(1%)
	2) 거의 이용하지 않는 편이다(한 달에 1회 이하)	128(21%)	15(3%)
	3) 가끔 이용하는 편이다(한 달에 2~3회)	214(36%)	73(16%)
	4) 비교적 자주 이용하는 편이다(일주일에 1회 이상)	105(17%)	98(21%)
	5) 매우 자주 이용한다(일주일에 3회 이상)	74(12%)	272(59%)

〈표 12〉 전자책 라이브러리 메뉴 사용 정도

설문 내용	응답 내용	빈도(비율)	
		일반이용자	전문가
전자책 라이브러리 메뉴 사용 정도	1) 전혀 이용하지 않는다	117(25%)	115(25%)
	2) 거의 이용하지 않는 편이다(한 달에 1회 이하)	108(23%)	100(22%)
	3) 가끔 이용하는 편이다(한 달에 2~3회)	172(37%)	126(28%)
	4) 비교적 자주 이용하는 편이다(일주일에 1회 이상)	51(11%)	59(13%)
	5) 매우 자주 이용한다(일주일에 3회 이상)	18(4%)	52(12%)

3.5 한국고전번역원 고전적 정리·번역 자료의 이용가치에 대한 일반이용자와 전문가의 인식

한국고전번역원에서 정리·번역하여 발간한 종이책의 “개인적 사용 가치”에 대해서는, 일반이용자와 전문가 모두 「가치가 매우 높다(일반이용자 49%, 전문가 32%)」, 「가치가 높은 편이다(일반이용자 30%, 전문가 27%)」 순으로 응답하였으며, 한국고전번역원에서 정리·번역하여 발간한 전자책의 “개인적 사용 가치” 역시 “종이책”과 마찬가지로, 일반이용자와 전문가 모두 「가치가 매우 높다(일반이용자 38%, 전문가 37%)」, 「가치가 높은 편이다(일반이용자 34%, 전문가 27%)」 순으로 응답하였다.

한국고전번역원에서 정리·번역하여 발간한 종이책의 “개인적 소장 가치”에 대해서는

일반이용자와 전문가 모두 「가치가 매우 높다(일반이용자 43%, 전문가 30%)」, 「가치가 높은 편이다(일반이용자 30%, 전문가 26%)」 순으로 응답하였다. 그러나 한국고전번역원에서 정리·번역하여 발간한 전자책의 “개인적 소장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해서는 일반이용자와 전문가가 약간 차이를 보였다. 일반이용자는 「가치가 매우 높다」(32%), 「보통이다」(29%) 순으로 응답하였고, 전문가의 경우는 「보통이다」(28%)가 가장 많았으며 「가치가 높은 편이다」와 「가치가 매우 높다」가 모두 25%로 동일하게 2순위였다.

한국고전번역원에서 정리·번역하여 발간한 종이책의 “도서관이나 관련 기관의 보존 및 소장 가치”에 대해서는 일반이용자와 전문가 모두 「가치가 매우 높다(일반이용자 67%, 전문가 62%)」, 「가치가 높은 편이다(일반이용자

22%, 전문가 20%)」 순으로 응답하였고, 한국고전번역원에서 정리·번역하여 발간한 “전자책”의 “도서관이나 관련 기관의 보존 및 소장 가치”도 “종이책”과 마찬가지로 일반이용자와 전문가 모두 「가치가 매우 높다(일반이용자 50%, 전문가 53%)」, 「가치가 높은 편이다(일반이용자 28%, 전문가 22%)」 순으로 응답하였다.

한국고전번역원에서 정리·번역하여 발간한 종이책의 “가독성”과 관련해서는 일반이용자와 전문가 모두 「가독성이 높은 편이다」가 각각 36%, 3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일반이용자는 「가독성이 매우 높다」(32%)를, 전문가는 「보통

이다」(33%)를 다음 순위로 응답하였다.

한국고전번역원에서 정리·번역하여 발간한 전자책의 “가독성”과 관련해서는, 일반이용자는 「보통이다」(35%), 「가독성이 높은 편이다」(34%) 순으로, 전문가는 「가독성이 높은 편이다」와 「보통이다」에 동일하게 36%로 응답하였다(〈표 13〉 참조).

한국고전번역원 정리·번역 자료의 이용 가치 및 가독성 여부에 대한 응답 내용과 관련해서 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PASW Statistics 18(SPSS 18)을 이용해 분석을 실시하였다. 대상 변인들의 정규성 검사(Sapiro-Wilks) 결과, 모든 항목의 유의확

〈표 13〉 한국고전번역원 정리·번역자료의 형태별 이용가치 인식

설문 내용	응답 내용	빈도(비율)	
		일반이용자	전문가
개인적 사용 가치(종이책)	1) 전혀 가치가 없다	4(1%)	8(2%)
	2) 약간 가치가 있다	30(5%)	76(17%)
	3) 보통이다	93(15%)	103(22%)
	4) 가치가 높은 편이다	182(30%)	125(27%)
	5) 가치가 매우 높다	292(49%)	146(32%)
개인적 사용 가치(전자책)	1) 전혀 가치가 없다	2(0%)	10(2%)
	2) 약간 가치가 있다	35(6%)	52(11%)
	3) 보통이다	129(22%)	103(23%)
	4) 가치가 높은 편이다	199(34%)	123(27%)
	5) 가치가 매우 높다	225(38%)	170(37%)
개인적 소장 가치(종이책)	1) 전혀 가치가 없다	3(1%)	19(4%)
	2) 약간 가치가 있다	43(7%)	77(17%)
	3) 보통이다	114(19%)	106(23%)
	4) 가치가 높은 편이다	179(30%)	119(26%)
	5) 가치가 매우 높다	255(43%)	136(30%)
개인적 소장 가치(전자책)	1) 전혀 가치가 없다	7(1%)	22(5%)
	2) 약간 가치가 있다	65(11%)	75(17%)
	3) 보통이다	172(29%)	130(28%)
	4) 가치가 높은 편이다	156(27%)	116(25%)
	5) 가치가 매우 높다	190(32%)	116(25%)

설문 내용	응답 내용	빈도(비율)	
		일반이용자	전문가
도서관이나 관련 기관의 보존 및 소장 가치(종이책)	1) 전혀 가치가 없다	0(0%)	3(0%)
	2) 약간 가치가 있다	11(2%)	22(5%)
	3) 보통이다	53(9%)	59(13%)
	4) 가치가 높은 편이다	133(22%)	90(20%)
	5) 가치가 매우 높다	400(67%)	283(62%)
도서관이나 관련 기관의 보존 및 소장 가치(전자책)	1) 전혀 가치가 없다	2(0%)	5(1%)
	2) 약간 가치가 있다	22(4%)	26(6%)
	3) 보통이다	106(18%)	81(18%)
	4) 가치가 높은 편이다	163(28%)	101(22%)
	5) 가치가 매우 높다	297(50%)	244(53%)
가독성(종이책)	1) 가독성이 매우 낮다	5(1%)	7(1%)
	2) 가독성이 낮은 편이다	36(6%)	35(8%)
	3) 보통이다	145(25%)	150(33%)
	4) 가독성이 높은 편이다	214(36%)	168(37%)
	5) 가독성이 매우 높다	192(32%)	96(21%)
가독성(전자책)	1) 가독성이 매우 낮다	10(2%)	9(2%)
	2) 가독성이 낮은 편이다	52(9%)	55(12%)
	3) 보통이다	210(35%)	164(36%)
	4) 가독성이 높은 편이다	202(34%)	165(36%)
	5) 가독성이 매우 높다	118(20%)	62(14%)

〈표 14〉 한국고전번역원 정리·번역자료의 이용가치에 대한 Mann-Whitney Test 결과

집단 구분(일반=1, 전문가=2)	N	평균순위	Mann-Whitney의 U	Z 값	근사유의확률(양측)	
개인적 사용 가치(종이책)	1	601	586.90	103431.500	-7.320	.000
	2	458	455.33			
개인적 사용 가치(전자책)	1	590	541.11	125310.000	-2.118	.034
	2	458	503.10			
개인적 소장 가치(종이책)	1	594	576.10	105967.500	-6.378	.000
	2	457	460.88			
개인적 소장 가치(전자책)	1	590	553.90	118351.500	-3.630	.000
	2	459	487.85			
도서관이나 관련 기관의 보존 및 소장 가치(종이책)	1	597	544.23	126429.500	-2.407	.016
	2	457	505.65			
도서관이나 관련 기관의 보존 및 소장 가치(전자책)	1	590	522.56	133962.500	-.192	.848
	2	457	525.87			
가독성 여부(종이책)	1	592	558.77	114687.500	-4.382	.000
	2	456	480.01			
가독성 여부(전자책)	1	592	542.03	124004.000	-2.314	.021
	2	455	500.54			

률이 모두 .000으로 나타나 .05보다 커야만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독립표본 T-검정이 아닌 Mann-Whitney Test로 검증을 수행하였다.

Mann-Whitney Test 결과, 한국고전번역원이 정리·번역하여 간행한 종이책과 전자책의 “개인적 사용 가치”, “개인적 소장 가치”, “가독성” 평가 및 “종이책의 도서관이나 관련 기관에서의 보존 가치”에 대해서는, 일반이용자와 전문가 집단의 근사유의확률(p값)이 .05보다 작아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한국고전번역원이 정리·번역한 전자책의 도서관이나 관련 기관에서의 보존 가치는 p값이 .05보다 높게 나타나 집단별 응답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표 14〉 참조).

4. 기초자료 및 설문 조사 종합 분석

4.1 선행연구 분석

기초조사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세계 출판시장에서의 전자책 판매량은 최근 들어 다소 감소하거나 정체되고는 있으나 전반적으로 꾸준히 증가해 왔으며 일상적 독서에서의 전자책 이용률 역시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전자책이 종이책에 비해 휴대성, 검색 용이성, 가격 경쟁력 등에서 여러 장점들을 갖고 있기 때문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전자책은 기술 발전 측면에서 종이책의 감성적 측면이나 가독성, 사용 편의성 등을 따라잡기에는 미흡한 요소들이 많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특히 전자책

단말기의 경우, 하드웨어에 적용되는 기술적인 요소 외에도 시각적 인터페이스 디자인 요소들에 따라 사용자의 감성과 경험에 대한 정도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가장 이상적인 형태의 전자책 단말기 디자인 및 두 매체가 갖는 단점을 상호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전자책과 종이책의 이용 목적이나 독서 방식의 영향력에 대한 연구에서는 대체로 교육 및 학술·연구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메모의 편리성 측면, 읽고 난 이후 기억에 오래 남는 지식의 습득 정도, 독서 활동 중 집중이 잘 되는 정도가 종이책이 전자책에 비해 월등한 것으로 나타나, 독서의 목적과 콘텐츠의 성격에 따른 출판과 서비스 방식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4.2 국내 고전적 정리·번역서 출판 현황 분석

국내 주요 고전번역기관 간행처의 해당 간행 목록을 토대로 고전적 정리·번역 간행 도서를 집계한 결과 2016년 기준 종이책 3,251책, 전자책 537책으로 나타났다. 조사된 고전번역기관 28곳 중 전자책 출력이 수행된 곳은 7곳에 불과하였다.

한국고전번역원, 국사편찬위원회, 전통문화연구회, 한국학중앙연구원, 수원박물관, 제주교육박물관에서 종이책과 전자책을 출판하고, 원주시에서는 전자책만을 출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을 위한 자료 제공 서비스 측면에서는 모든 자료들이 종이책과 전자책의 두 가지 방식 모두로 제공되지는 않으며, 둘 중 하나의 형태로만 제공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특히

분량이 방대한 『승정원일기』와 같은 자료들은 종이책 발간 없이 전자책과 원문텍스트 형태로만 제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책 서비스 구현과 관련하여 ‘접근용이성’, ‘인터페이스 제작 방식’, ‘열람 가능기기’, ‘제공 기능(화면의 확대 축소, 검색, 공유, 책갈피)의 다양성 항목’에 대해 분석한 결과, 접근용이성은 한국고전번역원이 가장 편리한 것으로, 제공 기능의 다양성은 한국학중앙연구원과 전통문화연구회가 보다 나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국내 기관의 전자책 구현 수준 또한 비교적 단순하며 아직 본격적으로 제공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책의 기본적인 장점인 편리성, 휴대의 간편성 및 검색의 용이성 등이 부분적으로 실현되고는 있으나 아직까지 대부분 인쇄 형태의 책을 출판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부산물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4.3 설문조사 분석

조사 결과, 종이책과 전자책의 개인적 사용 가치, 개인적 소장 가치, 가독성 평가에 있어서는 일반이용자와 전문가 집단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도서관이나 관련 기관의 보존 가치에 대한 평가는 종이책은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전자책은 집단별 응답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관련하여 일반이용자와 전문가 모두에서 고전적 정리·번역 자료의 종이책 형태가 전자책 형태에 비해 ‘이용 경험의 정도’, ‘가독성’ 여부, ‘가치 판단(개인적 이용 가치, 개인적 소장 가치, 도서관 등 관련 기관에의 소장 가

치)’에 대한 질문의 긍정적 응답률이 조금 더 높게 나타나, 아직까지는 종이책이 전자책에 비해 여러 측면에서 더 많이 선호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한국고전번역원의 고전적 정리·번역물 이용에 있어서 일반이용자와 전문가 대부분이 한국고전번역원 인터넷 홈페이지 서비스를 이용하고, 한국고전종합DB 서비스는 월 2~3회 이상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한국고전종합DB 내 전자책 라이브러리는 일반이용자와 전문가 모두 한국고전종합DB에 비해 사용 빈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 한국고전번역원의 고전적 정리·번역물의 경우 전자책 형태보다는 DB에서 제공되는 콘텐츠가 더 많이 이용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일반이용자들의 경우 대체로 고전적 정리·번역 자료를 한 달에 2~3회 정도로 가끔 이용하고, 이용 시 사용하는 주된 매체는 데이터베이스 형태의 웹서비스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반이용자 대부분(87%)이 평소 독자로서 우리나라 고전번역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문가의 경우, 고전적 정리·번역 자료를 일주일에 3회 이상으로 이용한다는 답변이 많았으며, 이용 시 주로 사용하는 매체는 일반이용자와 마찬가지로 데이터베이스 형태의 웹서비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분석대상 전문가의 과반 이상이 한국고전번역원에서 정리·번역하여 발간한 종이책을 거의 이용하지 않거나, 한 달에 2~3회 정도 이용하는 것으로 응답해 데이터베이스에 비해 종이책 이용은 저조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국고전번역원에서 발간 종이책의 소장 실태는 전문가의 43%가 수

권 정도, 26%는 수십 권 정도, 15%는 백 권 이상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 결론 및 제언

고전적 정리·번역서의 이용 확대를 위해서는 기존의 데이터베이스를 통한 콘텐츠 제공 외에 종이책, 전자책의 출판 효율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지만 이런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고전적 정리·번역서에 대한 관련 연구는 지금까지 이루어진 바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고전적 정리·번역서의 향후 출판 방향 모색과 관련하여 출판 방식의 변화와 현황 및 고전적 정리·번역서의 출판 형태에 대한 전문가와 일반이용자의 인식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일반적인 종이책과 전자책의 이용과 관련한 국내외 관련 연구를 분석하고 국내 주요 기관들의 고전적 정리·번역서 출판과 전자책 서비스 구현 현황을 조사하였으며, 한국고전번역원의 메일링 리스트와 전문가 리스트를 활용해 전문가와 일반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 조사를 통해 두 집단 간의 고전적 정리·번역서의 출판 형태에 대한 인식 차이를 알아보고자 하였으며, 이는 향후의 출판 방향에 고전적 정리·번역서의 특수성과 상징성을 고려하기 위한 것이다.

기초자료 분석과 설문조사 분석 결과를 종합할 경우, 아직까지 전자책이 종이책을 완벽히 대체하는 매체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우며, 현실적으로 각각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용자의 매체 선호도나 이용 목적, 가치 판단 등에 따라 상호

보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매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는 마이크로밀엠브레인이 2016년에 발표한 종이책과 전자책 이용 경험에 대한 국내 조사에서, 응답자들이 전자책을 구매할 때에는 크게 집중할 필요 없이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소설과 만화를, 종이책을 구매할 때는 시간을 들여 꼼꼼히 읽어야 하는 자기계발과 인문 분야를 상대적으로 많이 구입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과도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당분간 전자책이 종이책을 대체할 것으로는 예상되지 않으며 고전적 정리·번역서에 대해서도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다양한 이용자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당분간 종이책, 전자책 제공을 병행하는 것이 본 연구에서 수행한 기초자료 분석과 설문조사 분석 결과를 통해 얻은 전반적 결론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고전적 정리·번역서의 경우에도 대상 이용자층에 따라 각 자료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분석을 바탕으로, 단순 독서, 교육, 학술연구 등 다양한 이용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기능들을 모두 충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서비스 기능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된다. 본 연구의 기초자료 분석과 설문조사 분석 결과를 토대로 고전적 정리·번역서의 향후 출판 방향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교육이나 학술, 연구 목적으로 발간되는 경우에는 아직까지 종이책 발간이 더 효과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흥미 위주의 대중서보다는 학술연구나 번역, 교육 등을 위한 목적으로 이용되는 고전적 정리·번역서에 있어서는 종이책 형태 발간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필요가 있다.

그렇지만 앞으로의 기술 발전과 출판 경향 및 이에 따른 이용자의 평가를 고려할 경우 종이책과 병행해 전자책 출판도 중요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기존에 종이책으로만 발간되었던 자료도 전자책으로 변환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고전적 정리·번역서의 전자책 구현을 위해서는 보다 다양한 목적과 기능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고전적 자료의 특수성을 고려한 전자책 구현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 나아가 기능적 측면에서 현재의 기관별로 상이한 인터페이스를 지양하고, 어떤 환경에서도 이용이 가능한 표준화된 전자책 플랫폼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실제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고전적 정리·번역 자료의 출판 형태별 이용 현황과

더불어 가독성, 이용 및 소장 가치 등에 대한 직접적인 인식 정도를 조사해 분석함으로써, 그 동안 진행된 바 없는 고전적 분야의 출판 형태별 이용 및 가치 인식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 하지만 설문조사 대상이 한국고전번역원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일반 이용자와 전문가로 한정되어 조사 내용을 국내 고전적 정리·번역서 발간 자료 전체에 일반화해 해석하기는 어렵다는 제한점을 갖는다. 또한 고전적 정리·번역서의 경우 모든 이용자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대중서에서부터 전문가들만 이해할 수 있는 전문서적까지 그 스펙트럼이 매우 다양하므로, 다양한 이용자층의 이용 목적에 적합한 출판 형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세부 분야와 해당 이용자층을 대상으로 한 후속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참 고 문 헌

- [1] 교육부. 2017. 『인문학 진흥 5개년 기본 계획(2017-2021)』. 세종: 교육부. [online] [cited 2017. 9. 28.]
 <<https://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294&boardSeq=70225&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s=moe&m=0503&opType=N>>
- [2] 마크로밀엠브레인. 2016. 전자책 vs 종이책 이용경험 및 독서 관련 전반적 인식 조사. 『리서치보고서』, 2016-04: 228-266.
- [3] 문화체육관광부. 2017. 『인문정신문화 진흥 기본계획(2017-2021)』. 세종: 문화체육관광부. [online] [cited 2017. 9. 28.]
 <<https://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294&boardSeq=70225&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s=moe&m=0503&opType=N>>
- [4] 박수진. 2007. 『종이책과 전자책의 유형별 선호매체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 [5] 박영경, 이해미, 이설희. 2015. 종이같은 E-ink 전자책의 감성연구. 『감성과학』, 18(4): 119-128.
- [6] 배경재. 2015. 교육·연구용 전자출판물 사용경험 정의 및 사용성 평가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9(2): 255-274.
- [7] 손용범, 김영학. 2012. 사용자의 이해력 관점에서 전자책 장치의 크기에 관한 실험적 평가.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2(8): 167-177.
- [8] 신선. 2013. 종이책과 전자책의 독서 현황 분석. 『KISDI STAT Report』, 13-10-01: 2-6. [online] [cited 2017. 9. 28.] <<http://www.kisdi.re.kr/kisdi/common/premium?file=1%7C13234>>
- [9] 엄인영. 2016. 『오감을 통한 종이책의 파라텍스트(Para-texte) 개념 확장에 관한 연구: 종이책과 전자책의 비교를 통하여』. 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예술대자인대학원 시각정보디자인전공.
- [10] 이나래, 이우훈. 2012. 이북리더의 읽기자세에 대한 연구. 『한국디자인학회 2012 봄 국제학술대회 논문집』, 2012년 5월18일-5월19일, 인천: 연세대학교 송도캠퍼스: 2012(1): 146-147.
- [11] 이동용, 이태일. 2014. 페이지 전환 방식과 화면 크기가 디지털 리딩 경험에 미치는 영향. 『Journal of Integrated Design Research』, 13(2): 41-50.
- [12] 이민호. 2012. 『아이트래커를 이용한 전자책과 종이책의 가독성 비교』.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산업경영공학과.
- [13] 정명순. 2014. 디지털 시대에 전자책과 종이책의 상호 보완 역할. 『독일언어문학』, 63: 285-304.
- [14] 정미리, 김보연. 2013. 행위기반의 종이책과 전자책 사용자 분석 - eBooks 기능을 통해 살펴본 7단계 사용자 행위 모델. 『디지털디자인학연구』, 13(1): 671-680.
- [15] 조정미, 공병훈. 2017. 종이책과 전자책 출판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비교 연구. 『한국콘텐츠학회 2017 춘계종합학술대회 논문집』, 2017년 5월 12일-13일, 대전: 국립한밭대학교: 345-346.
- [16] 한국고전번역원. 2016. 『2016 고전번역연감』. 서울: 한국고전번역원. [online] [cited 2017. 9. 28.] <<http://ebook.itkc.or.kr/Viewer/OQGWBI3MD5WH>>
- [17] 한국문화경제학회. 2011. 『고전번역수요조사분석 및 성과측정 모델 개발 연구』. 서울: 한국고전번역원, ITKC-2010-PR01.
- [18]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2016. 『2016 출판산업 실태조사』. [online] [cited 2017. 9. 28.] <http://www.kpipa.or.kr/info/studyreportView.do?board_id=51&article_id=66881&pageInfo.nfo.page=&search_cond=&search_text=&list_no=51#>
- [19] "Publishers Sales Down at the Start of 2016, eBooks Decline". 2016. AAP Newsroom. June 27. [online] [cited 2017. 9. 28.] <<http://newsroom.publishers.org/publishers-sales-down-at-the-start-of-2016-ebooks-decline/>>
- [20] "ALA, BISG Announce Results of New Joint Study on Print/Digital Library Usage". 2015. ALAnews. December 03. [online] [cited 2017. 9. 28.] <<http://www.ala.org/news/press-releases/2015/12/ala-bisg-announce-results-new-joint-st>>

- udy-print-digital-library-usage>
- [21] Foasberg, N. M. 2014. "Student Reading Practices in Print and Electronic Media." *College & Research Libraries*, 75(5): 705-723. [online] [cited 2017. 9. 28.] <<http://crl.acrl.org/index.php/crl/article/view/16382>>
- [22] "E-Book Sales Down In UK." 2017. *Forbes*. April 27. [online] [cited 2017. 9. 28.] <<https://www.forbes.com/sites/ellenduffer/2017/04/27/e-book-sales-down-in-uk/#24160e9a3448>>
- [23] Millar, M. and Schrier, T. 2015. "Digital or Printed Textbooks: Which Do Students Prefer and Why?" *Journal of Teaching in Travel & Tourism*, 15(2): 166-185. [online] [cited 2017. 9. 28.] <<http://www.tandfonline.com/doi/abs/10.1080/15313220.2015.1026474?journalCode=wttt20>>
- [24] Myrberg, C. and Wiberg, N. 2015. "Screen vs. Paper: What Is the Difference for Reading and Learning?" *Insights*, 8(2): 49-54. [online] [cited 2017. 9. 28.] <<http://doi.org/10.1629/uksg.236>>
- [25] Pew Research Center. 2016. *Book Reading*. [online] [cited 2017. 9. 28.] <http://assets.pewresearch.org/wp-content/uploads/sites/14/2016/08/PI_2016.09.01._Book-Reading_FINAL.pdf>
- [26] Silverman, S. 2014. "The Book vs. E-Book: E-Book Survey Report." *South Carolina Libraries*, 1(1): Article 11. [online] [cited 2017. 9. 28.] <http://scholarcommons.sc.edu/scl_journal/vol1/iss1/11>
- [27] Waters, J. et al. 2014. "A Comparison of E-book and Print Book Discovery, Preferences, and Usage by Science and Engineering Faculty and Graduate Students at the University of Kansas." *Issues in Science and Technology Librarianship*, 2014(winter). [online] [cited 2017. 9. 28.] <<https://doi.org/10.5062/F48G8HN5>>
- [28] Zabukovec, V. and Vilar, P. 2015. "Paper or Electronic: Preferences of Slovenian Students." *In European Conference on Information Literacy*. 427-435 [online] [cited 2017. 9. 28.] <http://ecil2015.ilconf.org/wp-content/uploads/sites/4/2016/11/ecil2015_abstracts.pdf#page=121>
- [29] Zhang, Y. and Kudva, S. 2013. "EBooks vs. Print books: Readers' Choices and Preferences across Contexts." In *Proceedings of the Association for Information Science and Technology*, 50(1): 1-4. <<http://onlinelibrary.wiley.com/doi/10.1002/meet.14505001106/full>>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1] Ministry of Education. 2017. *5-year Basic Plans for Humanities Promotion(2017-2021)*. Sejong: Ministry of Education. [online] [cited 2017. 9. 28.]
<<https://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294&boardSeq=70225&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s=moe&m=0503&opType=N>>
- [2] Macromillembrian. 2016. "Investigation on the General Users' Perception about the Using and Reading Experiences of E-books vs. Paper Books." *Research Report*. 2016-04: 228-266.
- [3]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2017. *Basic Plans for Promotion of Humanistic Spirit Culture(2017-2021)*. Sejong: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online] [cited 2017. 9. 28.]
<<https://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294&boardSeq=70225&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s=moe&m=0503&opType=N>>
- [4] Park, Su-Jin. 2007. *A Study on the Preference Media based on Media Types between Paper-books and Electronic-books*. M.A. thesis, The Graduate School of Sungkyunkwan University, Korea.
- [5] Park, YungKyung, Lee, Hye-Mi and Lee, Seol-Hee. 2015. "Emotion Research of Paper-like E-ink E-book." *Science of Emotion & Sensibility*, 18(4): 119-128.
- [6] Bae, Kyung-Jae. 2015. "A Study on the Definition of User Experience toward Electronic Publication for Education and Research and the Usability Test for the Electronic Publication Devic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9(2): 255-274
- [7] Son, Yong-Bum and Kim, Young-Hak. 2012. "Empirical Evaluation on the Size of E-Book Devices in User Comprehensive View."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2(8): 167-177.
- [8] Sin, Seon. 2013. "Analysis of Reading Situation the Paper-books and E-Books." *KISDI STAT Report*, 13-10-01: 2-6. [online] [cited 2017. 9. 28.]
<<http://www.kisdi.re.kr/kisdi/common/premium?file=1%7C13234>>
- [9] Um, In-young. 2016. *A Study on the Expansion of Para-texte concept of Paper Book through Five Senses - Through a Comparison of E-books and Paper Books*. M.A. thesis, Major in Visual Information Design, Graduate School of Art and Design, Konkuk University, Korea.
- [10] Lee, Narae and Lee, Woohun. 2012. "Study on Reading Posture with E-book Readers Comparing with Paper Books and Computers." *Korean Society of Design Science Conference*

- Proceeding*, 2012 May 18-19, Incheon: Yonsei University Songdo Campus: 2012(1): 146-147.
- [11] Lee, Dongyong. and Lee, Taeil. 2014. "Effects of Page Change Method and Screen Size on Digital Reading Experience." *Journal of Integrated Design Research*, 13(2): 41-50
- [12] Lee, Min-Ho. 2012. *A Comparison of Legibility between the E-book and Paper-book using Eyetracker*. M.A. thesis, Department of Industrial and Management Engineering, The Graduate School Hanyang University, Korea.
- [13] Jeong, Myeongsoon. 2014. "Print und Digitale Medien." *Zeitschrift für Deutsche Sprache und Literatur*, 63: 285-304.
- [14] Jung, Mi Ri and Kim, Boyeun. 2013. "Analysis about Paper-Books and Electronic-Books Based on the Human Behavior - Through Case Analysis of eBooks Application through 7 step User Activity Model-." *Journal of Digital Design*, 13(1): 671-680.
- [15] Cho, Jung-mi and King, Byoung-hun. 2017. "Comparative Study of User Interface of Paper Book and E-book Publishing." *The Korea Contents Society Conference Proceeding*, 2017 May 12-13, Daejeon: Hanbat National University: 345-346.
- [16] Institute for the Translation of Korean Classics. 2016. *2016 Korean Classics Translation Yearbook*. [online] [cited 2017. 9. 28.]
<<http://ebook.itkc.or.kr/Viewer/OQGWB13MD5WH>>
- [17] Korea Association Of Cultural Economics. 2011. *The Study on the Development of Performance Measure Model and the Analysis of Classic Translation Demand*. Seoul: Institute for the Translation of Korean Classics, ITKC-2010-PR01
<<https://www.itkc.or.kr/cmmn/download.do?idx=35>>
- [18] Publication Industry Promotion Agency of Korea. 2016. *2016 Publishing Industry Survey*. [online] [cited 2017. 9. 28.]
<http://www.kpipa.or.kr/info/studyrepotView.do?board_id=51&article_id=66881&pageInfo.page=&search_cond=&search_text=&list_no=51#>

